

경제력향상의 디딤돌, 독서문화

金承煥

강남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우리는 이 지구상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 중 선진국이라는 대열 속에 존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구상에는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 강대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따로 있다.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이란 그 나라에 천연자원이 많아 경제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나라로서, 풍부한 생활을 하면서 문화수준이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면으로 보나 힘이 강한 나라를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이란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힘으로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선진국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기준은 여러가지 면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오늘날 가장 쉽게 평가하는 방법은 GNP가 얼마나 되느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GNP가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그것은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많은데, 그 나라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국토 어느 곳에도 천연자원으로 다른 나라를 이겨낼 힘은 없다. 그러므로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국민의 문화수준만 더 높일 수 있다면…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이 더 민주적이고, 더 교양적이고, 더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력을 지키면서 꾸준히 향상시키는 일 외에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높은 문화수준은 국민 모두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평생동안 교육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방법은 정보문화를 꾸준히 얻기 위해 기록문화를 읽는 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력이 제1의 국력이라면, 국민들의 독서력은 제2의 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생활방법이 선진국다운 철학이 없다면 선진국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또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도 국민들의 독서력 없이는 이제 더 향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남아 있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못한 삶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를 볼 때, 우리 국민 모두에게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독서의 기회와 환경이 꾸준하게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되고 또 선진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 또는 정보통신시대라고 한다.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생활에 이용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보다 더 건전하게 영위될 때만이 지금의 경제력이 지속되면서 더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 자랑할 만한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독서문화 없이는 어려운 일이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독서력을 기를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국력을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무섭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모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90년 1월 20일 제54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표지인물 2 고고학과 금속학의 행복한 만남

—「삼국시대 철기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낸 尹東錫박사

초점 4 문학사 재정리작업 어디까지 와 있나

서평 6 金允植「林和研究」—권영민

鄭秉熙「라신희곡연구」—심민화

7 金炳宗「中國繪畫의 造形意識研究」—許英桓

비센트 나바로「현대자본주의와 보건의료」—황상익

8 李文烈「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金鍾會

玄基榮「바람타는 섬」—金泰賢

9 이승우「日韓에 대하여」—성민업

정찬「기억의 강」—박덕규

연재기획 10 종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8)

— 해방전후의 古書店街

세미나 12 한국문화예술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네트워크의 발전

출판학제 13 '탈상업주의' 내세운 아동잡지 둘

14 세계各國史 연구도서 너무 부족하다

15 '소리글' 중심의 연령별 유아문학

주제별 아동문학 앤솔러지

신간화제 16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세이 17 華嚴의 바다에 띄운 '白雲의 꿈'—李箕永

지금 독서중 18 유하 詩集「무림일기」—조감독 金性洙씨

여성민우회「사무직여성의 현실과 운동」—회사원禹賢禎씨

19 박완서「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회사원林英心씨

황석영「무기의 그늘」—시인 김갑수씨

세계의 추천도서 20 청소년도서의 몇 가지 관점/李重漢

작품구상 21 「세상 속으로」—김종성

세계의 출판 22 어두운 시대의 진실 밝힌 기록·外

컬러 24 정치인 南載熙씨의 書架

26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27 새로 나온 시집

28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